(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地表調査報告書 第65輯

거제 장승포 공동주택건설 예정부지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7. 2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目　　次

Ⅰ. 조사개요 3

Ⅱ. 거제시의 환경 4

1. 거제시의 자연환경 4

2. 거제시의 고고·역사적 배경 6

1) 거제시 역사개요 6

2) 거제시의 역사·문헌자료 10

Ⅲ. 조사내용 15

1. 조사지역 개관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15

1) 조사대상지역 개관(장승포동) 15

2)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16

2. 고고·역사분야의 조사 24

3. 사회·민속 및 지명유래 분야의 조사 24

1) 사회·민속분야의 조사(장승포동) 24

2) 조사지역의 지명유래 25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27

참고문헌 28

도　　판 2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圖 面 目 次

도면 **1.**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분포도**(1/50,000)**……**1**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2**

圖 版 目 次

도판 **1.** 조사지역 원경**1(**동→서**)**……**31**
도판 **2.** 조사지역 원경**2(**북→남**)**……**31**
도판 **3.** 조사지역 전경**1(**서→동**)**……**32**
도판 **4.** 조사지역 전경**2(**북→남**)**……**32**
도판 **5.** 조사지역 근경**1(**동→서**)**……**33**
도판 **6.** 조사지역 근경**2(**서→동**)**……**33**
도판 **7.** 조사지역 근경**3(**동→서**)**……**34**
도판 **8.** 조사지역내 경작지**1(**남→북**)**……**34**
도판 **9.** 조사지역내 경작지**2(**동→서**)**……**35**
도판 **10.** 조사지역내 경작지**3(**서→동**)**……**3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Ⅰ. 調査槪要

우리 연구원은 (주)두꺼비주택에서 시행하는 '거제 장승포 공동주택건설' 예정부지에 대하여 시행자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규정에 의거 당 사업구간의 문화재지표조사를 의뢰받고 사업 시행계획 수립시 사업구간내의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유적 분포여부를 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대상 지역은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548-13번지 일원이며, 조사대상면적은 13,818㎡(약 4,180평)로서 현장조사는 사업대상지역 전구간 및 주변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대상지역과 그 주변 일대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헌조사는 고문헌 및 기존에 보고된 각종 발굴조사보고서와 학술지,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전구간을 도보로 실시하여 유적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지표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과 조사지역은 아래와 같다.

■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부원장)
- ◦책임조사원 : 임동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 ◦조 사 원 : 최희범(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 ◦조사보조원 : 이상용(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총조사기간 : 2007. 01. 10 ~ 2007. 02. 03(25일)
- ◦예비조사 : 5일
- ◦현장조사 : 2일
- ◦자료분석·정리, 보고서 작성 : 18일

■ 조사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548-13번지 일원

■ 조사면적 : 13,818㎡(약 4,180평)

■ 의 뢰 처 : (주)두꺼비주택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Ⅱ. 巨濟市의 環境

1. 巨濟市의 自然環境

거제시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가는 큰 섬으로 경상남도 남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서남쪽에서 동쪽으로 긴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많은 섬들은 동북쪽으로 가덕도를 건너 낙동강하구의 대저벌판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부산광역시의 영도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잔잔한 내해를 끼고, 마산·진해시와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통영시·고성군과 인접하면서 수려한 한려수도를 안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대한해협이 보이고, 건너편의 일본 대마도가 아련히 바라보인다.

지형적으로 볼 때, 거제지역의 산맥은 태백산맥계가 북쪽으로부터 이어졌고, 소백산맥계가 서남쪽에서 견내량을 건너 시래봉에서 시작되는데, 이 두 산맥이 어우러져 산과 섬을 만들었다. 태백산맥의 마지막 支脈인 진해 천장산과 소백산맥의 支脈이 벽방산에서 서로 만나 한반도 남쪽 바다로 힘차게 뻗어 나와 만들어 놓은 섬이 거제도이다. 동으로 玉女峰, 서로는 山芳山, 남으로는 加羅山과 老子山, 북으로 大錦山이 감싸고 있고, 중앙에 鷄龍山이 하늘로 비상하는 형상을 하고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여인이 치마를 두르고 다소곳이 앉아 있는 듯한 형상이라 하여 '裳郡'[1]으로 불렀다고 한다.

이 섬에는 서북쪽으로 가로지른 계룡산과 동남으로 누운 대금산이 주맥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의 중앙 협곡을 따라 넓은 들이 만들어져 있다. 이로 인해 동부면·둔덕면·연초면·신현읍 등지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 좁지만, 평야가 형성되어 벼농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산세가 급경사를 이루어 밭작물 재배만 가능한 정도이며, 아열대 기후의 특성에 힘입어 밀감, 유자, 파인애플 등의 특성작물 재배와 양봉업이나 목축업이 성행하고 있다.[2] 또한 장승포, 옥포, 장목 등의 항구 주변에는 수산업이 발달하여 멸치·갈치 등의 어업이 성행하고 굴·미역 등의 양식업도 발달되어 있다.

하천의 경우 사면이 바다인 관계로 빗물이 하천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하천의 규모도 크지 않은 것이 특징으로 烏良川을 비롯하여 **18**곳의 하천이 있다. 이렇듯 섬 내의 지형은 주로 산악지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안은 남해안의 특징인 리아스**(rias)**식 해안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진 다도해를 형성하여 본 섬 주위에는 **11**개의 유인도를 비롯하여 **51**개의 무인도서가 산재해 절경을 이루고 있다.

---

1) 본문에 인용한 史料에 의하면, 신라 景德王 때 생긴 명칭으로, 지형적인 형상과 관련해 '치마 裳'자를 사용하였다고 전한다.

2) 巨濟市誌編纂委員會,『巨濟市誌』, **2002.**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또한 부근해역은 청정해역으로 지정, 보존되고 있으며, 특히 동쪽 해역은 한·난류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각종 어류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3)]

지리적 입지상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가깝고, 동해와 서해를 잇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군사적 요충지이자 물자수송(조운관련)의 요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항구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방어용 城·鎭·堡를 설치하여, 해상교통로에 필요한 조운·항만시설 등의 원할한 운영과 외적의 침입이나 폐해로부터 보호하였다. 특히 지세포항·구조라항 등은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중국의 사신이 경유하였던 항구로서 자연적인 조건이 풍랑을 피하기 좋은 양항이자 일본과 가까웠기 때문이다.

거제도의 기후는 그 입지적 요인으로 인하여 해양성기후의 특성을 지닌다. 즉 사계절이 뚜렷하고, 고온다습한 기후이다. 이는 해양의 영향으로 기온의 일교차·연교차가 적고 연중 온화하기 때문이며, 여름철 장마와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강수량이 많은 다우지역으로 온대다우기후 지역에 속한다. 따라서 한서의 차가 심하지 않아 생활하기에 적합하다. 연교차는 **24.2**℃, 연평균 강우량은 **1.727.8**㎜로 다우지역이나 섬이기 때문에 집중호우 재해는 적은 편이다.[4)] 연평균기온은 **13.8**℃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난한 지역에 속하며, 최고평균기온은 **18.3**℃이고, 최저평균기온은 **9.3**℃이다.

거제지역의 지질형태는 퇴적암과 화성암 계열의 화강암층 지질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낙동강의 지맥이 연결된 사등·신현·거제·하청·장목·장승포 등 동부일부까지는 퇴적암 지대이고, 둔덕·남부, 동부일부와 일운면 등 서부지역은 화성암 계열의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5)]

교통상의 위치를 살펴보면, 육상교통으로 **1971**년에 완공된 거제대교가 국도 **14**호선을 통해 통영·마산을 연결하고 있으며, 또한 마산·부산·여수 등지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도 발달되어 있다. 또한 **2003**년 착공하여 **2010**년 경 완공될 예정인 거제~부산 연결도로와 통영~대전간 고속도로가 거제시까지 연장되면, 더욱 더 편리한 교통망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행정구역상의 면적은 **400.69**㎢이며, **1**읍 **9**면 **6**동으로 **89**개의 법정리와 **242**개의 행정리 및 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시청소재지는 신현읍 고현리이며, 시 전체의 세대수는 **69,934**가구에 인구는 **200,172**명(**2006**년 **10**말 통계자료)이다.[6)]

---

3)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로 연중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동쪽의 장승포 양지바위 끝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해역으로 **720**여종의 수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巨濟市誌』, 巨濟市誌編纂委員會, **2002.**)

4) 巨濟市誌編纂委員會,『巨濟市誌』, **2002.**

5) 巨濟市誌編纂委員會,『巨濟市誌』, **2002.**

6) <거제시청 홈페이지 현황자료> 참조.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2. 巨濟市의 考古·歷史的 背景

1) 巨濟市 歷史 槪要

(1) 先史時代부터 三國時代

일반적으로 도서지역은 가뭄때 물이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거제도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물이 풍부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각종 조선관계 공장이 들어섬으로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자연환경의 훼손도 심각해지고 있다. 거제지역에는 신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많은 선사유적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인류의 정착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7]

삼한시대 유적도 거제면 남산패총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대 삼한시대 경남지역에서 전남지역에 이르기까지 남해안의 해양을 중심으로 활동한 해양문화 집단인 '浦上八國'[8]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 그 세력이 전남해안까지 뻗쳤다는 기록뿐 아니라 가야와 신라의 관계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으니, 이를 통해 농경을 기반으로 한 당시의 내륙세력인 가야, 신라와의 대립 및 포상팔국이 신라에 병합되어 衰落하는 과정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포상팔국과 가야, 신라의 대립은 신라 奈解尼師今 때의 竭火城 전투[9] 이후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갈화성 전투 이후 경상도 일대 포상팔국의 세력이 신라나 가야에 완전히 복속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한시대 이후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거제지역에 대한 문헌기록은 확실하지 않은 편이다.

(2) 統一新羅時代

신라 法興王 19년(532)에 가락국이 신라에 통합되고, 이후 삼국을 통일 한 文武王(661~680) 때에 瀆盧國 지역에 처음으로 '裳郡'[10]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景德王이 실시한 지방관제 개편 때에(9州 5小京) 지금의 명칭인 '巨濟郡'으로 개명하면서, 鵝洲縣·溟珍縣·南垂縣(또는 松邊縣)을 속현으로 두었다. 이 같은 사실은 거

7) 東亞文化硏究院,『거제문화유적분포지도-거제시』, 2005.

8) 浦上八國이란 남해안 지방, 즉 지금의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여덟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던 소국가들로 이름이 밝혀진 골포국(마산만)을 비롯하여, 칠포국(진동), 고사포국(고성), 사물국(사천)의 4국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4개이다.

9)『三國史記』卷四十八 <列傳>八 勿稽子傳 참조.

10)『三國史記』卷三十四 <雜誌>三 地理一 巨濟郡 참조.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제지역의 유력한 세력이 그 독립적인 위상을 상실하고, 중앙정부의 지방통치구조에 편입되었으며, 결국에는 신라의 통치체제 내부로 완전히 종속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시기의 거제지역 治所는 둔덕면 거림리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거제군과 세 영현에도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치소인 邑司와 함께 그 하부의 말단행정 구역에는 행정촌과 자연촌이 편재되어 있었을 것이다.[11] 이후 昭聖王 元年(799)에는 菁州(지금 진주시)의 巨老縣, 즉 거제군의 아주현을 국학생의 祿邑(食邑)으로 삼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12] 당시 아주현지역의 농업생산력 기반이 상당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배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방관제는 신라말 혼란기까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나, 통일신라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나말여초의 사회변동기에는 각 지역에서 豪族勢力이 성장하여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그 지역에 대한 행정·경제적 지배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였는데, 이 시기 거제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거제지역이 남해연안 지역사회의 해상교통의 중심지였음을 고려해 볼 때, 대중국·일본의 해상무역과 농업 경제력을 장악한 토착세력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타 호족세력들과 연대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3) 高麗, 朝鮮時代

고려초기 成宗 2년(983)에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전국을 12牧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행정구역개편을 실시하였으니, 둔덕면 거림리에 치소를 두고 '岐城縣'이라 개칭하여, 12牧 중의 하나인 晋州牧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顯宗 3년(1012)에 행정구역을 확대·개편하여 지금의 통영·고성인 固自縣을 통합하였으며, 顯宗 9년(1018)에 '거제현'으로 개칭하고, 고성현을 분리하여, 각 현에 현령을 두었다. 이후 元宗 12년(1271)에 왜구의 침범과 진도의 三別抄 항쟁군의 내습으로 인하여 그 땅을 잃자 주민을 육지로 옮겨 거창현의 영속인 加祚縣 등지와 진주목의 임내인 永善縣에 僑寓하였다. 이어 忠烈王 때에는 管城에 병합되었다가 곧 복구하였다.[13]

한편 고려시대의 거제지역을 살펴보면 귀양지이자 해적과 왜적의 침입이 잦았던 지역으로 그 피해가 막대하였으며, 심지어는 섬을 버리기도 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毅宗이 폐위되어 머물렀다는 등 귀양지로서의 역할이다.

睿宗 7년(1112) 6월에는 扶餘公 (王)燧의 유배지를 거제현으로 옮기던 도중 玄風에서 죽었던 사실이나,[14] 毅宗 11년(1157)에 고향인 동래 유배지에서 戀君의

11) 巨濟市誌編纂委員會,『巨濟市誌』, 2002.

12)『三國史記』卷十 <新羅本紀>十 昭聖王 一年條 참조.

13)『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및『新增東國輿地勝覽』卷三十二 <巨濟縣> 참조.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정을 표현한 <鄭瓜亭曲>의 작자 鄭敍가 거제현으로 유배지를 옮겼던 사실, 그리고 僧統 寵을 귀양 보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毅宗 **24**년**(1170)**에는 鄭仲夫 등이 '무신 난'을 일으키자 毅宗이 단신으로 거제현으로 피해간 사실[15]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유배지로서의 역할은 거제지역이 변방으로 전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의 고급문화, 특히 왕실과 귀족문화, 중앙의 불교와 유교문화를 수용하여 거제지역 사람들의 의식을 자각시키고, 또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하였을 것이다.[16]

둘째, 해적 및 왜구의 침탈에 의해 피해가 컸다는 점이다.

仁宗 **6**년**(1128)**에 "남쪽 경계에 해적이 많이 일어남으로 御史中丞 鄭應文으로 선무사를 삼아 가서 曉諭하게 하였다"라는 기사와[17] "**(**상략**)**……명진·성변·아주 세 현의 해적인 佐成 등 **820**명이 투항하여 복속하였다……**(**하략**)**"라는 기사는 곧 거제가 **12**세기 초에 해적들의 주요 활동거점이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元宗 **12**년**(1271)**에 왜적의 침입으로 이 지역을 잃었다는 사실이나, 忠定王 庚寅 **2**년**(1350)**에 왜구가 고성·거제 등지에 침범하였는데 이를 격파한 사실, 그리고 이후 왜구의 출몰이 잦아진 기록 등이 있다. 이로 인해 해상교통의 거점인 거제도는 고려말 禑王 때까지 황폐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왜구의 침략은 高宗 **10**년**(1223)**부터 恭讓王 **4**년**(1392)**까지 **169**년간 총 **529**회에 이를 만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禑王·恭讓王 때만 총 **493**회로써 침략빈도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침략 대상지역도 주로 남해안의 삼남지방을 비롯하여 평안·함경지역까지 전국의 연안지역과 내륙지역까지 횡행하였다. 그리고 거제지역은 **13**세기 이후 고려가 망할 때까지 직접적으로 총 **5**차례나 왜구의 침략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고려말 거제인근 왜구의 침범사례

시 기	침입사례	비 고
高宗 13년(1226) 정월	경상도 연해의 州郡을 침략	거제현령 陳龍甲이 격퇴
忠定王 2년(1350) 2월	고성·거제·죽말 등 침입	왜구의 본격적 침입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
恭愍王 10년(1361) 4월	고성·울주·거제에 침입	
恭愍王 18년(1369) 7월	거제·남해현	귀화한 왜인들이 배반하여 본국으로 돌아감
昌王 8월(1389)	거제도에 침입	鎭撫 韓元哲이 적선 1척 노획, 18명 참살

14)『高麗史』卷十三 <世家>卷十三 睿宗 七年 六月 乙未條 참조.

15)『高麗史』卷十九 <世家>第十九 毅宗三 庚寅條 참조.

16) 巨濟市誌編纂委員會,『巨濟市誌』, **2002.**

17)『高麗史』卷十五 <世家>第十五 仁宗一 六年 戊申條 참조.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조선시대에 와서는 국방상의 요충지가 되었는데, 초기에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道 중심체제'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행정개편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정개편 속에서 초기인 太宗 **14**년**(1414)**에 거창현과 합하여 '濟昌縣'이라 하였다가, 이듬해에**(1415)** 다시 '거제현'으로 환원하였다. 世宗 元年**(1419)** 上將軍 李從茂가 대마도의 왜구를 정벌하기 위하여 거제도의 見乃梁과 烏壤城에 군사를 거느리고 원정하였으며,[18] 世宗 **4**년**(1422)**에 이르러 왜구의 침입이 종식되고 안정을 취하게 되자, 거제도의 옛 속현인 명진·아주·송변과 河淸·竹吐·古丁 등 **3**부곡의 옛 고장으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한편 知縣事를 파견하여 다스리게 하고, 치소는 沙等城에 두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세종 **5**년**(1423)** 고현성의 축성을 명하였으며, '거제현'으로 고쳤다. 世祖 **11**년**(1465)**에는 거제현 오아포(가배량)에 우수영을 두었으며, 成宗 元年**(1470)**에 거제현이 해상방어의 요충지이므로 옥포·지세포·조라포·오아포(가배량)·구영등·장목포에 '**6**鎭'과 구율포(율천)에 '堡'를 두었는데 이를 '巨濟 **7**鎭'이라 한다. 이후 成宗 **20**년**(1489)**에 거제현이 남해안의 중요거점임을 인식하여 '거제부'로 승격하였다. 그러나 中宗 **14**년**(1519)**에 경상우도의 '거제현'으로 다시 환원시켰다.

宣祖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거제지역과 그 연안해는 왜군과의 치열한 접전장이 되었다. 이때 거제읍성이 왜군에 함락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거제지역은 경상도와 전라도수군이 최초로 합동작전을 수행하여 승리하였던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이며, 반대로 삼도수군이 궤멸했던 칠천량 해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19] 또한 왜군이 거제도를 점령하여 조선수군의 반격에 대비해 성을 쌓기도 하였다.[20] 顯宗 **5**년**(1664)**에 이르러 임진왜란으로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한 거제읍성을 폐지하고, 縣衙를 옛 명진현의 서부면으로 이전하고 '邑內面'이라 하였다. 이때 거제읍성은 '고현성'으로, 거제읍기는 '고현면'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肅宗 **33**년**(1707)**에 '都護府'로 승격되었고, 英祖 **45**년**(1769)**에 이르러 거제도호부에는 **6**面에 屬地 **4**面이 있었고, 그 면의 하부에는 **83**坊里가 있었다.

(4) 近·現代

구한말부터 서양세력의 동양진출 및 일본의 침탈로 인한 역사적 격변기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지방행정체계에도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高宗 **32**년**(1895)**, 지방관제의 개정으로 '**23**府制'를 실시하였다가, 이듬해인 高宗 建陽 元年

---

18) 馬山浦에서 출발하였다는 이설도 있다.

19) 경상우수영은 처음에 薺浦였다가 뒷날에 거제 烏兒浦의 加背梁 그리고 固城으로 옮겨졌다. 여기서 거제는 곧 경상우수영 관할이며, 남방지역을 방위하는 최전방 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의 우수영이라면 가배량을 말하기도 한다.(『巨濟市誌』,(巨濟市誌編纂委員會 **2002.**)

20) 임진왜란 당시 거제도에는 왜적이 **5**개의 왜성을 쌓았다고 한다.(본문 <성곽과 봉수>의 내용을 참조)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1896), 다시 '**13**道制'의 실시에 따라 '경상남도 거제군'으로 되었다. 그리고 光武 **4**년**(1900)** '鎭南郡'을 설치하고 거제군 둔덕면에서 한산면을 분리, 편입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합·개편에 따라 거제군은 육지의 용남군, 진남군과 폐합하여 통영군에 예속되어 향후 **39**년간 附庸하게 됨으로써 독자적인 군단위 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때 거제지역은 외포면이 장목면에 통합되는 것 외에는 면 단위 행정구역의 변화는 없었다.[21)]

1953년 거제도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난민이 몰려들고, 포로수용소가 생김으로써 인구 **40**만 명에 달하는 거대도시로서 후방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자 통영으로부터 분리되었다.**(39**년 만에 장승포 임시청사에서 '거제군'으로 복군·개청하였다**)** 이후 **1971**년 거제대교가 개통됨으로써 육지와 연결되었으며, **1975**년에는 장목면의 저도와 망와도가 진해시에 편입되었다. **1979**년에 신현면을 읍으로 승격함으로써 **2**邑 **9**面이 되었다가, **1989**년 장승포읍이 거제군에서 분리되어 장승포시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995**년 도농통합 때 장승포시와 거제군을 통합하여 지금의 거제시가 되었다.

2) 거제시의 역사 文獻資料

史料 『 』 魏書 東夷傳 弁辰條

弁辰도 역시 **12**國으로 되어 있다. 또 작은 여러 別邑이 있는데**(**이들 모두에는**)** 제각기 渠帥가 있다. **(**그 중에서**)** 세력이 가장 큰 곳은 그 우두머리를 '臣智'라 하고, 그 다음에는 '險側'이라 하였으며, 다음에는 '樊濊'가 있고, 다음에는 '殺奚'가 있으며, 다음에는 '邑借'가 있다. 己柢國 不斯國…**(**중략**)**…弁辰安邪國·弁辰瀆盧國·斯盧國…**(**중략**)**…弁韓과 辰韓은 도합 **24**국이 된다. 큰 나라는 **4~5**천 家, 작은 나라는 **6~7**백 家로 총 **4~5**만 호이다.……**(**하략**).**[22)]

史料 『 』 新羅本紀 奈解尼師今 年

奈解尼師今 **14**년**(209)** 가을 **7**월, 바닷가의 여덟 나라가**(**浦上八國**)** 연합하여 가라를 공격하니, 가라는 신라에 왕자를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태자 于老와 이벌찬 利音에게 명하여 **6**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를 구원하게 하였다. **(**그들은**)** 출격하여 **8**국의 장군들을 죽이고, 포로 **6**천여명을 잡아 돌아왔다.[23)]

---

21)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경상남도 연구』, **1997.**

22)『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 有已柢國 不斯國…**(**중략**)**…弁辰安邪國 弁辰瀆盧國 斯盧國…**(**중략**)**…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하략**).**

23)『三國史記』卷二 <新羅本紀>二 奈解尼師今 十四年條.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史料 『 』 新羅本紀 昭聖王 年

元年**(799)** 봄 **3**월**,** 청주의 巨老縣을 국학생의 祿邑으로 정하였다.**24)**

史料 『 』 雜誌 地理

거제군은 文武王이 처음으로 裳郡을 설치했던 곳으로 바다 가운데에 있는 섬이었는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이 군에 속한 현은 셋이다. 鵝洲縣은 원래 巨老縣이었는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溟珍縣은 원래 買珍伊縣이었는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南垂縣은 원래 松邊縣이었는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은 다시 옛 이름으로 회복되었다.**25)**

史料 『 』 列傳 勿稽子

(상략**)**……그 뒤 **3**년이 지나서 骨浦**,** 柒浦**,** 古史浦 등 **3**국이 竭火城을 공격하였는데 왕이 직접 병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구원하였다. **3**국의 군대는 크게 패하였다……**(**하략**).26)**

史料 『 』 世家 第 仁宗 六年 戊申

仁宗 **6**年 戊申年**(1128)** 夏四月 丁巳**,** 南界에 해적이 봉기하였다. 어사중승 정응문을 선무사로 임명하여 현지에 가서 그들을 타이르게 하였다.**27)**

史料 『 』 世家 第 毅宗 二十四年 九月

庚寅年**(1170)** 己卯**,** 왕은 홀몸으로 떠나서 거제현으로 피해 갔으며**,** 태자는 珍島縣으로 추방되었다. 이날 정중부·이의방·이고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아우인 翼陽公 皓를 맞이하여 왕위에 앉혔다.**28)**

十四年秋七月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與伊伐湌利音 將六部兵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

24)『三國史記』卷十 <新羅本紀>十 昭聖王 一年條.
元年 春三月 以菁州巨老縣 爲學生祿邑.

25)『三國史記』卷三十四 <雜誌>三 地理一.
巨濟郡 文武王初置裳郡 海中島也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鵝洲縣 本巨老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溟珍縣 本買珍伊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南垂縣 本松邊縣 景德王改名 今復故.

26)『三國史記』卷四十八 <列傳>八 勿稽子.
(상략**)**……後三年 骨浦 柒浦 古史浦 三國人 來攻竭火城 王率兵出救 大敗三國之師……**(**하략**).**

27)『高麗史』卷十五 <世家>第十五 仁宗一 六年 戊申條.
六年 夏四月 丁巳 南界海賊多起 以御史中丞鄭應文 爲宣撫使 往諭之.

28)『高麗史』卷十九 <世家>第十九 毅宗三 二十四年 九月條.
己卯 王 單騎遜于巨濟縣 放太子于珍島縣 是日 仲夫義方高等 領兵 迎王弟翼陽公皓卽位.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史料 『 』 志 第 地理

거제현은 원래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서 신라 文武王이 처음 이곳에 상군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은 거제군으로 고쳤다. 顯宗 **9**년**(1018)**에 현령을 두었고 元宗 **12**년**(1271)**에 왜적의 침입으로 이 지역을 잃었으므로 백성들이 거창현의 가조현에 붙어살았으며, 忠烈王 때 管城에 합쳤다가 얼마 후 원래대로 고쳤다. 比加島, 助音島 등이 있으며 속현이 **3**개 이다.

아주현은 원래 신라의 巨老縣으로서 거제도 안에 있는데 景德王이 지금 명칭으로 고쳐 거제군 관할 하의 현으로 만들었으며 고려에서도 그대로 불렀다. 송변현은 원래 신라의 松邊縣으로서 역시 거제도 안에 있는데 景德王은 南垂로 고쳐서 거제군 관할 하의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에 와서 다시 옛 명칭으로 고쳐서 그대로 본 현에 소속시켰다. 명진현은 원래 신라의 買珍伊縣으로서 역시 거제도 안에 있는데 景德王이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거제군 관할 하의 현으로 만들었으며, 고려에서도 그대로 소속시켰다.[29)]

史料 『 』 巨濟縣

동쪽으로 玉浦까지 **20**리이고, 서쪽으로 見乃梁까지 **37**리이며, 固城縣 경계까지는 물길로 **3**리이다. 남쪽으로 塔串까지 **41**리이고, 북쪽으로 永登浦까지 **50**리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1,044**리이다.

〔建置沿革〕본래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다. 신라 文武王이 처음으로 裳郡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이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고려 顯宗이 현령을 두었고, 元宗 **12**년**(1271)**에 왜구 때문에 **(**백성들이**)** 땅을 버리고 거창현의 속현이었던 加祚縣에 우거하였다. 忠烈王 때에 管城과 병합하였다가 곧 혁파하였다. 본조 太宗 **14**년**(1414)**에는 거창과 병합하여 濟昌縣이라 부르다가 얼마 뒤에 또 파했다. 世宗 **14**년**(1422)** 옛 섬으로 환원하여 知縣事로 만들었으며, 그 뒤에 현령으로 고쳤다.

〔郡名〕裳郡·岐城.

〔形勝〕瀛海가 浩洋하다…**(**중략**)**…對馬島와 서로 바라보인다.

〔城郭〕읍성 **:** 石築이며, 둘레는 **3,038**척이고 높이는 **13**척이다. 성 안에 샘물 세 개와 못 둘이 있다.

〔關防〕右道水軍節度使營 **:** 현 남쪽 **37**리 지점에 있다. 석성이 있는데 둘레는 **2,620**척이고 높이는 **13**척이다. 성 안에 샘물 하나, 못 하나가 있다. 산달포에서 오아포로 옮겼다……**(**하략**)**.

〔烽燧〕鷄龍山烽燧 **:** 남쪽으로 加羅山에 응하고, 서쪽으로 고성현 彌勒山에

---

29)『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巨濟縣 本海中島 新羅文武王 初置裳郡 景德王改爲巨濟郡 顯宗九年置縣令 元宗十二年 因倭失土 僑寓居昌縣之加祚縣 忠烈王時 併于管城 尋復舊 有比加助音島 屬縣三.
鵝洲縣 本新羅巨老縣 在巨濟島 景德王改今名 爲巨濟郡領縣 高麗因之 松邊縣 本新羅松邊縣 亦在巨濟島 景德王改名南垂 爲巨濟郡領縣 高麗復舊名 仍屬 溟珍縣 本新羅買珍伊縣 亦在巨濟島 景德王改今名爲巨濟郡領縣 高麗因之.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응한다. 加羅山烽燧 : 북쪽으로 계룡산에 응한다.

〔學校〕 鄕校 : 현 서쪽 **1**리 지점에 있다.

〔祠廟〕 사직단 : 현 서쪽에 있다. 문묘 : 향교에 있다. 성황사 : 성 남쪽 **1**리 지점에 있다. 여단 : 현 북쪽에 있다.**30)**

史料 『 』 巨濟府邑誌

〔建置沿革〕 본래 바다 가운데의 섬이다. 신라 文武王이 처음으로 읍을 설치하였으며, 고려 元宗 **12**년**(1271)** 왜구로 인하여 (백성들이) 땅을 잃고 거창의 가조현에 僑寓하였고, 忠烈王 때 관성에 병합하였다가 곧 혁파하기에 이르렀다.**(**鵝洲·松邊·溟珍 **3**개의 속현이 있다. 아주는 본래 신라의 巨老縣이었는데, 景德王이 鵝洲로 고쳤으며, 고려에서는 그대로 따랐다. 송변은 景德王이 南垂로 고쳤으며, 고려가 다시 옛 이름으로 하였다. 명진은 본래 매진이현이었는데, 景德王이 溟珍으로 고쳤으며, 고려에서는 그대로 따랐다. 지금도 아주·송변·명진 등의 마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명칭이 혁파되어 합쳐진 것에 대해서는 未詳이다) 本朝**(**조선**)**에 이르러 太宗 **14**년**(1414)** 거창과 병합하여 제창현이라 부르다가, 혁파하였다. 世宗 **4**년**(1422)** 치소를 사등으로 환원하였다가 뒤에 또 다시 고현으로 옮겼으며, 후일 康熙 甲辰年**(**顯宗 **5**년, **1664)**에 치소를 또 다시 고현으로부터 명진폐현의 서쪽 **3**리로 옮겼다. 前朝말년에**(**고려**)**

---

30)『新增東國輿地勝覽』卷三十二 <巨濟縣> 참조.

巨濟縣 : 東至玉浦二十里 西至見乃梁三十七里 至固城縣界水路三里 南至塔串四十一里 北至永登浦五十里 距京都一千四十四里.

〔建置沿革〕本海中島 新羅文武王 初置裳郡 景德王改今名 高麗顯宗置縣令 元宗十二年 因倭失土僑寓居昌縣之加祚縣 忠烈王時 併于管城 尋罷 本朝 太宗十四年 併于居昌號濟昌縣 又尋罷 世宗十四年 復還舊島 爲知縣事 後改縣令.

〔郡名〕裳郡 岐城**(**觀風案**)**.

〔形勝〕瀛海浩洋…**(**중략**)**…與對馬島相望.

〔城郭〕邑城 : 石築 周三千三十八尺 高十三尺 內有三泉二池.

〔關防〕右道水軍節度使營 : 在縣 南三十七里 有石城 周二千六百二十尺 高十三尺 內有一泉一池 自山達浦移于烏兒浦.

〔烽燧〕鷄龍山烽燧 : 南應加羅山 西應固城縣彌勒山 加羅山烽燧 : 北應鷄龍山.

〔學校〕鄕校 : 在縣西一里.

〔祠廟〕社稷壇 : 在縣西 文廟 : 在鄕校 城隍祠 :在城南一里 厲壇 : 在縣北.

이 외에도 山川에 거제시 인근의 섬과 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며, 영·보·성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다. 그리고『增補文獻備考』에서 발췌하여 수록한 것을 살펴보면, "〔방면〕邑內는 남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40**리이다. 古縣內는 북쪽으로 처음이 **15**리, 끝이 **40**리이다. 屯德은 서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30**리이다. 沙等은 서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40**리이다. 迎草는 북쪽으로 처음이 **30**리, 끝이 **50**리이다. 河淸은 북쪽으로 처음이 **40**리, 끝이 **70**리이다. 원래는 하청부곡이다. 古丁部曲은 옛날 거제현 때의 治所이다. 竹吐部曲은 동쪽으로 **25**리이다. 未近鄕은 죽토의 동쪽에 있다. 德海鄕은 동북쪽으로 **45**리이다. 鍊汀莊은 동북쪽으로 **30**리이다.〔영아〕혁폐 : 右水營은 본래 熊川의 薺浦에 두었는데, 후에 창원의 合浦로 옮겼다가 다시 거제의 山達浦로 옮겼으며, 다시 塔浦와 烏兒浦로 옮겼는데, 宣祖 **26**년**(1593)**에 三道統制營을 겸하게 하였다가, 宣祖 **37**년**(1604)**에 고성의 龍頭浦로 옮기면서 오아포는 行營으로 삼았는데 후에 혁폐하였다. 고성 편에 있다.〔진보〕영등포진·조라포진·가배량진·율포보에 대한 언급과 이 당시 이미 혁폐된 진보인 영등포구진·조라포구진·옥포구진·지세포구진·율포구보·오양폐보·소비포폐보 등에 대한 업급이 수록되어 있다.〔봉수〕登山·南望은 모두 가배량에 있다. 옥림산은 옥포에 있다. 訥逸串은 지세포에 있다. 柯乙串은 율포에 있다"라고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섬의 오랑캐(왜구)들이 침범하니, 거제의 백성들이 옛 땅을 버리고 지금의 거창 경역에 교우하기에 이르렀다…(중략)…世宗卽位 **5**년 壬寅年**(1422)**에 거제의 백성들이 본토(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자 성곽의 축성을 명하였다…(중략)…지금 主上殿下가 議政府右贊成 晋陽 鄭相公 苯으로 하여금 음양과 수천을 보게 하여 치소를 舊居의 남쪽 **10**리쯤으로 옮기게 하였다. 북쪽은 大海고 삼면은 산으로 막혀있다…(중략)…城은 **3,600**여 척이며 屋은 **40**여 간이다……(하략).

〔郡名〕裳郡(신라 文武王이 설치하였다) 巨濟(景德王이 고쳤다) 岐城(觀風案).

〔官職〕都護府使兼金海鎭管兵馬僉節制使秩(무관 종**3**품, 고려 顯宗이 현령을 설치하였다. 本朝(조선) 世宗 **14**년**(1432)** 知縣事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현령으로 하였다, 肅宗 **37**년**(1711)** 통제사 오중주 정홍좌 어사 이이만 등이 모두 남해 제일의 관방이 될 만하다고 조정에 狀啓로 청하고, 현령 변진영 역시 上疏하자, 드디어 都護府使로 승격시켰다. 訓導는 지금 없고, 倭學은 **1**인, 通事 **1**인으로 옛 統營에 있다. 肅宗 **37**년**(1171)** 변진영의 상소로 玉浦鎭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座首 **1**인, 別監 **2**인, 軍官 **40**인, 旗牌官 **10**인, 人吏 **60**인, 知印 **15**인, 使令 **20**명, 軍 **7**명(口), 婢 **20**명(口)이다.

〔山川〕鷄龍山…(중략)…加羅山…(중략)…大今山…(중략)…鶯山…(중략)…玉林山…(중략)…山芳山…(중략)…九川…(중략)…光山川…(중략)…屯德川…(중략)…新川……(하략).

〔坊里〕邑內面 동부 **14**坊…(중략)…서부 **7**坊…(중략)…屯德面 **7**坊…(중략)…沙等面 **6**坊…(중략)…古縣面 一運 **11**坊…(중략)…二運 **10**坊…(중략)…延草面 **12**坊…(중략)…河淸面 **16**坊……(하략).

〔戶口〕 原戶는 **6,660**호에, 인구는 **31,502**명이며, 이 중 남자가 **15,777**명이고 여자는 **15,725**명이다.[31]

---

31)『慶尙道邑誌』<巨濟府邑誌>.
〔建置沿革〕本海中島 新羅文武王 始爲置邑 至高麗元宗十二年 因倭亂失土 僑寓于居昌之加祚縣 忠烈王 令併于管城尋罷之(有屬縣三 曰鵝洲 曰松邊 曰溟珍 鵝洲 本新羅巨老縣 景德王改鵝洲 高麗因之 松邊 景德王改南垂 高麗復舊名 溟珍 本買珍伊縣 景德王改溟珍 高麗因之 今猶有鵝洲松邊溟珍等村 冒其號而其革而合之未詳) 至本朝 太宗十四年 復幷于居昌曰濟昌縣又罷 世宗四年 還治于沙等後又移于古縣後康熙甲辰 又移于溟珍廢縣西三里令治 前朝之季紀綱陵夷島夷侵凌 巨濟之民棄其舊土 僑寓居昌之境者有年矣…(중략)…世宗卽位之五年壬寅 巨濟之民願還本土命築城郭…(중략)…今我 主上殿下 命議政府右贊成 晉陽鄭相公苯相陰陽觀水泉乃移治于舊居之南十里許 北臨大海三面阻山…(중략)…城三千六百有餘尺 屋四十有餘間……(하략).
〔郡名〕裳郡(新羅文武王所命) 巨濟(景德王改之) 岐城(觀風案).
〔官職〕都護府使兼金海鎭管兵馬僉節制使秩(武從三品 高麗顯宗 置縣令 本朝 世宗十四年 改知縣事 後復改縣令 肅宗三十七年 統制使吳重周 鄭弘佐 御史李頤晩 皆以爲南方之第一關防幷狀請于朝 縣令邊震英亦上疏 遂陞都護府使 訓導今無 倭學一人 通事一人 舊在統營 肅宗三十七年 因邊震英疏移置玉浦鎭 座首一人 別監二人 軍官四十人 旗牌官十人 人吏六十人 知印十五人 使令二十名 軍七口 婢二十口.
〔山川〕鷄龍山…(중략)…加羅山…(중략)…大今山…(중략)…鶯山…(중략)…玉林山…(중략)…山芳山…(중략)…九川…(중략)…光山川…(중략)…屯德川…(중략)…新川……(하략).
〔坊里〕邑內面 東部十四坊…(중략)…西部七坊…(중략)…屯德面七坊…(중략)…沙等面六坊…(중략)…古縣面 一運十一坊…(중략)…二運十坊…(중략)…延草面十二坊…(중략)…河淸面十六坊……(하략).
〔戶口〕原戶 六千六百六十戶 人口 三萬一千五百二口 內男一萬五千七百七十七口 女一萬五千七百二十五口.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Ⅲ. 調査內容

1. 調査地域 槪觀 및 周邊의 文化財 現況

1) 조사대상지역 개관(장승포동)

금번 조사는 '거제 장승포 공동주택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로 조사지역은 '거제시 장승포동 **548-13**번지 일원'이며, 조사대상 면적은 **13,818**㎡(약 **4,180**여평)이다. 이곳의 자연·인문·역사적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長承浦洞은 거제시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 장승포만과 접해 있으며, 서쪽은 玉女峰(**555m**)을 경계로 아양동과 접해 있고, 남쪽은 마전동과 접하고 있으며, 북쪽은 두모동과 접하고 있다. 아주동과 마찬가지로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 대다수가 원래부터 거주하였던 토착민이기에 토색적인 경향이 강한 곳이며, 해상교통관광의 거점이자 수산업 유통기지로 지역경기 활성화정책에 따른 개발지이다. 인접한 마전동에는 해운항만청, 여객선종합터미널, 선박출입국관리소 등이 있으며, 부산항과 정기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다. 교통은 국도 **14**호선이 거제대교에서부터 해안으로 이어져 있고, **1018**지방도가 지나고 있다. 행정구역상 전체면적은 **2.03**㎢(거제시 전체대비 약 **0.7%**)이며, 장승포, 두모동 **2**개의 법정동과 **6**통 **52**반을 관할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1,315**가구에 인구는 **3,402**명(**2006**년 현재 통계현황)이다.[32] 문화재는 巨濟 玉女峰 烽燧臺(도기념물 제**129**호, 朝鮮時代, 장승포동 옥녀봉 마전고개 정상)가 있다.[33]

거제지역에 사람이 처음 생활하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시대로 추정된다. 이는 산달도패총이 신석기시대 전기간에 걸쳐 문화양상을 형성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청동기시대는 지석묘를 중심으로 많은 유적들이 구릉이나 주변 평야지대에 나타나고 있어, 인류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34] 하지만 장승포동과 인접한 일운면 소동리 및 거제지역 여러 곳에서 많은 청동기시대 유적들이 확인되는 것에 비해[35] 장승포동 일대는 옥포만 해안지대에서 패총만 일부 확인되고 있다. 삼한시대부터는 인근한 아주동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支石墓부터 신라시대 古墳 등의 유구가 확인된 바 있으며, 유구내부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을 통해 인접한 내륙지역 및 일본과의 문화교류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장승포는 신라시대 거제 屬縣 중 하나였던 鵝洲縣에 속한 관할지역

---

32) 거제시청 <장승포동 홈페이지 통계현황> 참조.

33) 東亞文化硏究院,『文化遺蹟分布地圖-巨濟市』, **2005.**

34) 東亞大學校 博物館,『巨濟 鵝洲洞遺蹟』, **1998.**

3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이었다.『三國史記』<雜誌>-地理에는, 삼국을 통일 한 文武王(661~680)이 濊盧國 이었던 지역에 처음으로 '裳郡'을 설치한 이후, 통일신라 景德王 16년(767), '巨濟郡'으로 개명하면서 鵝洲縣·溟珍縣·南垂縣(또는 松邊縣)의 3縣을 屬縣으로 두었다고 하며,[36] 당시 치소는 현재 아주동 거로마을 지역으로 비정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주변에 성터의 흔적이 남아 있다. 또한 성터에서 鵝洲川 건너편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산등성이에 堂嶝山城이 있어(옥포조선소 건설시 철거되었다) 이러한 성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권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昭聖王 1년(799), 당시 菁州(지금의 진주시) 관할이었던 거로현을 국학생의 祿邑으로 삼았다는 기록 외에 거제관할의 영현으로써 변동이 없었다.

고려시대 元宗 12년(1271), 거제지역이 왜구의 침입으로 피폐해지자, 아주현이 속한 거제현은 당시 居昌縣에 속한 加祚縣으로 피난하게 되었다가, 조선초기 世祖~世宗朝에 걸쳐 남해 海防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포·조라포 등 거제도 내에 7鎭(일명 '巨濟 7鎭')을 설치하고 水軍萬戶의 진성을 축성하면서 다시 復歸하였으며,(옥포진은 成宗 元年(1470)에 설치되었다) 成宗 19년(1488)에 玉浦城이 축성되었다. 조선중기 宣祖 25년(1592)에 발발한 임진왜란 때 일본수군을 처음으로 무찌른 승첩지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옥포대첩기념비(옥포동 산1-1번지)가 옥포대첩기념공원 내에 세워져 있다. 이후 조선후기 英祖 45년(1769)의 坊里개편을 통해, 古縣面 二運에 속한 10坊 중 하나였으며, 조선말기인 高宗 26년(1889), 二運이 '二運面'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행정체제가 되었으며, 일제강점기인 1914년 군·면통폐합 개편으로 龍南郡과 巨濟郡이 統營郡으로 통합되면서, '統營郡 二運面'으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1935년에 二運面이 '長承浦邑'으로 개칭, 승격되어, 1945년에는 25개 里洞를 관할하게 되었다. 해방이후 1953년 거제군이 다시 설치되었으며, 1987년 '거제군 장승포 직할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9년 장승포읍이 '長承浦市'로 승격되어 6개 행정동 중 하나인 장승포동이 되었으며, 1995년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통합되어 '거제시 장승포동'으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조사대상지역 주변에서 확인된 선사유적으로는 청동기시대의 덕포동석묘군, 아주동지석묘군, 내곡지석묘군, 능포동지석묘군, 옥림리지석묘군, 소동리지석묘군 등이 알려져 있으며, 三國時代 및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으로는 아주동고분군, 내곡고분군 등의 분묘유적과 아주동 삼층석탑 등이 있다. 또한 옥포성지, 당산성지, 옥녀

---

36) 여기에 관한 문헌기록으로는『三國史記』卷三十四 <雜誌>三 地理一,『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燃藜室記述』別集 卷十六 <地理典故> 州郡,『嶠南誌』卷六十九 <巨濟郡> 등 여러 기록에 '鵝洲縣 : 本新羅買珍伊縣 亦在本島 景德王改今名來屬 高麗因之 後置監務 元宗朝 避倭出陸僑寓晋州永善縣 李朝定宗合于江城縣 稱珍城 世宗朝復來屬 距縣南十五里'라고 되어 있다.(참고문헌은 가장 후대의 기록인『嶠南誌』<巨濟郡>의 기록)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봉봉수대, 능포동봉수대 등의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의 문화재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1) 德浦洞遺蹟

德浦洞 780-4번지 장자마을 일대에 분포한다. 덕포마을에 있는 덕포유치원 앞 교차로에서 장자골쪽으로 약 500m를 가면 장자마을 표지석이 있다. 이 표지석의 남쪽 약 100m 지점 경작지에 支石墓 5기가 약 3~20m 간격으로 분포해 있다. 지석묘의 장축은 모두 남북방향이며, 평면형태는 1기만 方形이고 나머지는 모두 長方形이다. 上石의 규모는 길이 110~190cm, 너비 50~170cm, 높이(두께) 50~110cm 정도이다. 이 중 2기의 지석묘 아래에는 支石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확인된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 곳의 지석묘를 칠성바위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원래는 7기의 지석묘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지석묘가 위치하고 있는 논의 지주에 의하면 가장 동쪽에 있는 지석묘의 논둑을 일직선화 하는 작업 중 磨製石劍 1점과 無文土器가 출토되어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하였다고 한다. 진술에 따르면 石劍은 二段柄式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석묘의 북쪽 지역으로 통과하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구간에 대하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靑銅器時代의 住居址 4동과 竪穴遺構 4기가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지석묘와 함께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등 聚落遺蹟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玉浦城址(경상남도 기념물 제104호)

玉浦城이 위치한 곳은 옥포동 417번지 일대로 玉浦灣의 중심해안이며 현재 體城 내외에 민가가 밀집하면서 성벽은 대부분 훼손되고 민가의 담장에서 부분적으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잔존부위에 의하면 체성은 朝鮮前期에 축조된 일반 平地邑城처럼 평면 方形에 가까운 형태로 夾築하면서 외벽은 自然大石을 세워 겉쌓기하고 내벽은 막돌로 쌓은 뒤 속채우기는 잡석으로 채운 상태이다. 그러나 잔존부위가 내외벽중 한곳만 남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체성 전체를 同一手法으로 축조하였음을 단정할 수는 없다. 옥포성은 남해안 水軍關防城 중에서 드물게 평지에 축조된 것이며 다른 鎭城에 비해 사용시기도 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존 둘레 590m, 높이 1.2m, 폭 3m 정도이다.

문헌기록에서는 옥포성이 朝鮮 成宗 21년(1490) 8월에 水軍鎭城으로 축조되었다고 전해지며, 축성시기와 관련된 문헌상의 내용과 고고학적으로 관찰된 축조수법이 동일하여 상호 검증이 가능한 자료여서 더욱 주목된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3) 鵝洲洞古墳群(경상남도 기념물 제161호)

鵝洲洞古墳群은 아주동 산40번지 일대인 옥포 대우조선의 서문쪽 전방 야산에 위치하며 이 곳은 거제시의 남동쪽에 위치하는 玉浦灣의 중간 해안선 부분으로 서쪽에 있는 해발 470m의 國士峰의 동쪽 기슭에 해당한다. 古墳群은 현재 소나무와 잡목으로 덮혀 있고 숲속에는 작은 산길이 있다. 고분군 아래 쪽에는 예비군 참호를 만들면서 고분이 많이 훼손되었고 封墳 1기의 상부에도 예비군 참호가 만들어져 봉분이 훼손되어 있다. 또한 봉분 주변 곳곳에는 遺構의 壁石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드러나 있다. 봉분 직경 20~10m 정도의 비교적 큰 것과 봉토가 깎여 그 흔적만 남긴 것 등 대소 고분 20여기가 분포하고 있다. 또 언덕을 따라 개설된 농로에는 石槨으로 보이는 석열이 일부 노출되어 있다. 과거 도로공사시 많은 遺物이 출토되어 현재 巨濟博物館에서 당시의 유구와 유물을 복원하여 함께 전시하고 있다.

아주동고분군에 대하여 1996년 東亞大學校博物館, 2004년 慶南文化財硏究院, 2005년 東亞文化硏究院 등에 의해 3차례 發掘調査가 이루어졌는데 三國時代에서 統一新羅時代에 이르는 다수의 竪穴式石槨墓와 橫口式石室墳 등의 古墳이 조사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蓋, 有臺盌, 有蓋高杯, 短頸壺, 長頸壺 등의 토기류가 대부분이고 鉸具, 刀子, 棺釘, 집게 등의 철기류는 소량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이 고분군은 대체로 6세기 초반에서 7세기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대형의 봉분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분군의 범위도 비교적 넓어 지배자급에 해당하는 집단의 고분이라고 사료된다.

(4) 鵝洲洞支石墓群

鵝洲洞 支石墓群이 위치한 곳은 아주동 747-1번지 일대로 이 곳은 國士峰(해발 470m)의 동쪽 기슭에 있는 鵝洲洞古墳群 전방에 입지해 있었다. 동아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밭으로 개간된 경작지의 둑에 도로의 방향과 나란하게 3기의 지석묘가 분포해 있었다고 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上石은 길이 200~260cm, 폭 140~200cm, 두께 90~110cm 정도의 크기이고 하부에서 支石이 확인되는 것도 1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해인 1996년에 대우조선 노동조합 복지회관 건설시 지석묘가 훼손되어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의해 發掘調査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三國時代 및 統一新羅時代의 古墳과 함께 모두 16기의 지석묘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埋葬遺構가 확인되었다. 埋葬主體部의 형식은 石棺 1기를 제외한 모두가 石槨 구조이다. 이 곳에서 조사된 석관은 소형인데 小兒用으로 추정된다. 석곽 중 일부는 하부에 다시 蓋石을 가진 것도 있다. 매장주체부의 장축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방향은 북동-남서향 위주인데 頸飾과 胸飾 등 裝身具의 출토위치로 보아 頭向은 북동향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紅陶, 磨製石鏃, 磨製石劍, 川河石製 玉類, 靑銅鏃 등이 있다. 출토유물의 특징으로 보아 유적의 조성연대는 靑銅器時代 中期로 추정된다.

(5) 內谷墳墓群

內谷墳墓群은 國士峰**(**해발 **470m)**의 남쪽 기슭에 있는 낮은 능선상에 분포해 있다. 鵝洲縣城址가 있는 성안마을에서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1km**를 들어가면 내곡마을이 나오며 이 마을의 북쪽으로는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고 이 경작지의 서쪽에는 內谷支石墓群이 분포해 있으며 내곡지석묘군의 북쪽 능선에서는 **2**개소의 墳墓群이 확인되었다. 가운데의 계곡을 중심으로 서쪽 능선상에서 확인된 三國時代 고분을 內谷古墳群으로, 동쪽 능선의 하단부에서 확인된는 朝鮮時代 墳墓를 內谷墳墓群으로 설정하였다. 내곡 분묘군은 동쪽 능선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墳墓群으로 능선의 하단부에 단독으로 입지하거나 **3**기가 群을 이루어 **8**기가 분포해 있다. 봉분의 하단부에는 대부분 석축시설이 축조되어 있으며 群을 이룰 경우 封墳은 서로 연접해 있다. 봉분의 평면형태는 圓形이며 장축방향은 대체로 능선의 방향과 동일한 남북방향이다. 봉분의 규모는 직경이 **450~600cm**이며 잔존높이는 **50~150cm** 정도이다. 내곡 분묘군은 봉분의 규모나 입지조건, 그리고 하단부에 축조된 축대시설 등으로 보아 조선시대의 분묘군으로 추정된다.

(6) 內谷古墳群

內谷古墳群은 國士峰**(**해발 **470m)**의 남쪽 기슭에 있는 낮은 능선상에 분포해 있다. 鵝洲縣城址가 있는 성안마을에서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1km**를 들어가면 내곡마을이 나오며 이 마을의 북쪽으로는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고 이 경작지의 서쪽에는 內谷支石墓群이 분포해 있으며 내곡지석묘군의 북쪽 능선에서는 **2**개소의 古墳群 확인되었다. 가운데의 계곡을 중심으로 서쪽 능선상에서 확인된 것이 三國時代 고분인 내곡고분군이다. 봉분은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5~10m** 간격으로 열을 이루며 **6**기가 분포해 있는데 封墳의 평면형태는 楕圓形이며 장축방향은 대체로 능선의 방향과 동일한 남북방향이다. 봉분의 규모는 직경이 **700~800cm**이며 잔존높이는 **50~200cm** 정도이다.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는 봉분은 **6**기이지만 이외에도 封土墳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수기 확인된다. 내곡고분군은 봉분의 규모나 입지조건, 그리고 능선 하단부의 경작지에서 삼국시대의 硬質土器片이 확인는 점 등으로 보아 삼국시대의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7) 內谷支石墓群

내곡 支石墓群은 國士峰(해발 **470m**)의 남쪽 기슭에 있는 경작지에 분포해 있다. 鵝洲縣城址가 있는 성안마을에서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1km**를 들어가면 내곡마을이 나오며 이 마을의 북쪽으로는 비교적 좁은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경작지의 서쪽은 계단식의 경작지이나 현재는 대부분 휴경되고 있어 잡초가 무성하다. 이 휴경지 내에 **6**기의 支石墓가 분포해 있다. 지석묘는 **2~50m** 간격을 두고 대체로 남북방향으로 열을 이루고 있다. 지석묘의 장축은 동서방향이 **4**기, 남북방향이 **2**기이며, 평면형태는 長方形 **2**기, 楕圓形 **3**기, 不定形이 **1**기이다. 上石의 규모는 길이 **140~310cm**, 너비 **70~130cm**, 높이(두께) **50~80cm** 정도이다.

(8) 鵝洲縣城址

鵝洲縣城址는 鵝洲洞 **1118**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옥포에서 대우조선을 「ㄷ」자형태로 감싸고 도는 도로를 지나 아주교를 지나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玉女峰(해발 **554m**) 아래의 들판에 성안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아주현성은 이 마을을 흐르는 鵝洲川을 동쪽에 두고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는 성의 거의 전부분이 경작으로 인해 훼손되었고 더구나 지금은 택지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원상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주현성지는 문헌상으로는 新羅時代 이후의 鵝洲縣 治所로 추정되고 있는데 과거 성벽의 양상에 대하여『巨濟市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69**년 필자가 향토사료 조사차 탑골에 들렀을 때 그 당시 도로는 바닷가로 있었으며 탑골마을은 현재의 길 아래에도 있었고 그 마을 주위에 성벽이 있었다. 탑골마을은 옥녀봉 산기슭이었는데, 탑골마을 뒤로부터 간송마을 앞과 용소골마을 앞으로 해서 당목마을을 돌아 성벽같은 것이 있었다. 탑골마을 뒤로는 성벽의 흔적이 잘 남아 있었는데 기단으로 보이는 곳도 있었고, 성돌은 **1m**정도 되는 것으로 넓은 쪽을 골라 밖으로 나오게 하여 외벽을 만들고 성벽 안쪽에는 작은 돌로 채워져 있었다. 남은 성벽은 마치 이 빠진 톱날처럼 엉성하게 남아 있었으며 어떤 곳은 성벽을 이용하여 집 담벽으로 사용했고, 성벽따라 탑골 윗마을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 아주 안골의 성은 내곡천 따라 성벽 일부가 남아 있었다. 아주현지역에 당(등)산성과 안골성, 탑골성 등 **3**곳에 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골에는 장관청 성안마을 등 당시의 유적이 있었다"

여기서 안골성은 규모가 너무 협소하며 당등산에 있던 성은 아주현의 외성으로 옥포만을 경계하던 성으로 보고, 탑골 주위에 있었던 성을 아주현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9) 堂山城址

堂山城址는 鵝州洞 산40번지 堂嶝山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973년 대우조선소가 들어서면서 城이 훼손되었다. 城이 훼손되기 전에 體城이 鵝州里와 鵝陽里의 중간지점에 돌출한 구릉위에 축조되어 있었는데 동쪽과 남쪽은 石築이고, 북쪽과 서쪽으로는 土築이었다고 한다. 城은 내외 이중의 테뫼식 구조이며 평면형태가 前方後圓墳과 유사한 형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堂山城이라는 이름은 城이 위치한 구릉의 정상에 祠堂이 있어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불렀다 한다. 이 당산성은 玉浦灣의 전초기지와 같은 城으로 壬辰倭亂 때에 玉浦大捷의 전승을 거두게 한 망루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新羅 때 鵝州縣이 있었을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져 왔다고 한다. 성안에는 우물이 1개소 있었다고 한다.

1959년 巨濟島民에 의해 이 성위에 옥포대첩 기념탑을 세우고 매년 5월 7일 기념제전과 각종 문화행사를 해왔으나 1973년 대우조선소가 들어서면서 당산이 없어지고 이곳에 있던 기념탑과 옥포정이라는 정자가 대우조선소 부지내로 옮겨지게 되었다.

(10) 鵝州洞三層石塔(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3호)

이 탑이 위치한 곳은 鵝州洞 1번지로 현재는 대우조선소 내로 편입되었다. 원래는 현재의 위치에서 동북방 200m 지점 구도로변에 있었던 것으로 1935년 박학중씨가 경작 중 발견한 것이다. 아주동은 신라때 법률사가 있었던 곳으로 그 곳 주변을 고찰과 탑의 흔적이 많아 탑골이라 불리우고 있다. 현재 탑은 基壇 없이 1층 屋身石을 지면에 세웠는데 1층 옥신석과 1~3층의 屋蓋石만 원래의 것이고 2·3층 옥신석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옥개석과 옥신석은 각각 一石으로 제작되었는데 1층 옥신석은 隅柱만 模刻되었으며, 3개의 옥개석은 4단의 층급받침과 옥개석 윗면을 2단으로 몰딩하였다. 현재 높이는 300cm이고, 1층 옥개석은 가로와 세로가 121.6cm의 方形이다.

(11) 麥浦洞 烽燧臺

麥浦洞 烽燧臺는 거제시 능포동 능포아파트 뒷산(해발 178.3m)에 위치한다. 능포동의 해안가에 위치한 야산의 산정상에 축조된 봉수대로 玉浦灣을 사이에 두고 옥포동을 바라다보는 위치이다. 능포동의 능포초등학교를 지나 해안가까지 들어가면 도로가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여기서 좌측으로 도로 끝까지 가면 능포봉수대의 표지판이 보인다. 산 아래에서 등산로를 따라 도보로 약 30분가량 따라 올라가면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봉수대에 다다른다. 능포봉수대는 壬辰倭亂 당시 옥포, 助羅鎭의 별망으로 멀리 가덕도와 大韓海峽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왜구의 침입과 해안경비 등 변방의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江望山烽燧臺, 玉女峰烽燧臺와 함께 間烽烽燧臺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던 봉수대를 **2000**년 **2**월에 등산로 개설과 함께 정비하여 현재 체육시설과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다. 봉수대는 평면형태가 남북으로 긴 楕圓形으로 복원되어 있는 상태이다. 복원된 석축의 남쪽에서 하강하는 계단상의 석축시설이 있다. 복원된 타원형의 석축이 防護壁인지 煙臺인지는 알 수 없다. 내부는 잡풀로 우겨져 내부시설의 관찰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복원된 석축아래로 원래의 석축이 잔존하고 있는데, 비교적 경사가 급한 서측에는 복원된 석축시설을 포함해 **3**단의 구조이며, 경사가 완만한 동측의 등산로 쪽으로는 **2**단의 구조가 확인된다. 상부가 복원되어 있는 상태로 원상의 파악은 곤란하다. 복원된 상부 타원형 석축의 규모는 **17.4×11.2m**이며, 석축 상단의 폭은 약 **2m**, 높이는 약 **80cm**이다.

(12) 菱浦洞支石墓群

菱浦洞은 長承浦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해안가 마을로서 능포초등학교 맞은 편에 있는 거부아파트의 동쪽으로 개설된 능포서**1**길을 따라 약 **150m**를 들어가면 우측으로 꺽이는 지점이 나오는데 이 지점의 북쪽에 있는 밭 경작지 일대에 **2**기의 支石墓가 분포한다. 지석묘가 분포하는 지역은 계단식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북쪽으로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남쪽과 동쪽으로는 주택지가 조성되어 있어 일부분만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지석묘는 거의 연접된 상태로 배치되어 있는데 평면형태는 각각 제형과 不定形이며, 上石의 규모는 길이 **100~160cm**, 너비 **90~120cm**, 높이(두께) **50~100cm** 정도이다. **2**기의 지석묘 모두 상석의 하부에는 支石 등 하부구조로 판단되는 석재가 확인된다.

(13) 玉女峰烽燧臺

玉女峰烽燧臺는 玉女峰(해발 **554m**) 줄기의 연대골(煙臺谷, 해발 **222.6m**)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북쪽으로는 江望山烽燧臺, 동쪽으로는 長承浦 일대, 서쪽으로는 鵝州와 玉浦, 남쪽으로는 一運面 臥峴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로 남동쪽에서 침입하는 왜구들의 감시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접한 玉浦鎭 및 知世浦鎭과 연결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대우조선 앞 도로에서 시멘트로 포장된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어 옥녀봉봉수대까지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다. 현재 봉수대 입구는 잔디밭을 조성하였고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시민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1994년에 현지 측량조사를 실시하였고 1995년에 그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조사보고에 따르면 봉수대의 구조는 하부 기단부터 2단으로 시작하여 3단의 煙臺로 구성되어 있고, 1炬의 火炬로 구성되어 있다. 봉수대의 직경은 13m이며 조사시의 잔존높이는 약 4m이었다고 한다. 연대 1단은 90×50×60cm 크기의 자연석을 사용하여 허튼층쌓기로 축조하였는데, 이러한 축조기법은 조선시대에 축조된 거제지역의 성지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연대 2단은 60×40×40cm 정도의 자연석(山石)을 사용하였으며 연대 3단은 30×50×30cm 크기의 석재를, 火口部는 40×30×20cm 크기의 자연석을 부분적으로 치석하여 쌓았다. 봉수대의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원형에 가깝고 연대하부는 큰 돌을 사용하고 상부로 오를수록 적은 돌을 사용해 쌓았다. 연대 상부에 원형의 화거와 연대 상부 남동쪽으로 화구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내부 연실은 허물어져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었으나 장방형으로 길이 2.2m, 폭 1m 정도로 추측된다.

(14) 玉林里支石墓群

長承浦에서 14번 국도를 따라 海金剛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장승포를 벗어나 一運面으로 진입하면 첫 번째 나오는 마을이 玉林里 상촌마을로서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마을 진입로 좌우의 경작지에 35기의 支石墓가 분포해 있다. 지석묘가 위치한 곳은 북서쪽에 있는 玉女峰(해발 584.7m)이 남동쪽으로 급하게 내려오다가 완만하게 해안가로 내려오는 기슭에 해당된다. 이 지역은 계단식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일부는 휴경지로 잡초가 무성한 상태이다. 지석묘는 50~250m 간격으로 3~10기씩 크게 7개의 群으로 분포해 있다. 지석묘의 장축은 동서방향이 16기, 남북방향이 19기이며, 평면형태는 長方形 12기, 梯形 5기, 楕圓形 7기, 方形 2기, 不定形이 9기이다. 上石의 규모는 길이 140~440cm, 너비 70~230cm, 높이(두께) 30~160cm 정도이다.

(15) 小洞里支石墓群

장승포에서 14번국도를 따라 해금강 방향으로 약 4km를 가면 지세포만이 나오고 지세포만의 중앙에 소동리가 위치한다. 지석묘는 이 마을의 내부와 주변에 분포하는데 현재 파악되는 것은 대략 10여기이며 주변에는 상석과 유사한 대형 자연석들이 흩어져 있어 분간이 어려운 것도 다수 있다. 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광복전에 일본인들에 의해 도굴되었고 1963년 이 마을 손천만씨가 정원조성시 지하 약 1m 깊이에서 마제석검을 발견해 신고하여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중이라고 한다. 또한 동아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여기가 확인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된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10**여기만 확인되는데 주민들이 경작이나 주택 건축을 하면서 많이 파손하였다고 한다.

지석묘의 장축방향은 동-서 방향이거나 남-북 방향이며 평면형태는 대체로 장방형이거나 부정형인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지석묘의 크기는 다양한데 길이 **120~340cm,** 너비 **60~250cm,** 두께 **30~100cm** 정도이다.

2. 考古·歷史分野의 調査

조사대상 지역은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548-13**번지 일원이며, 두꺼비 주택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조사대상면적은 **13,818**㎡**(**약 **4,180**평**)**이다. 현장조사는 사업지역 전구간 및 주변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의 지형은 해발 **203m**인 야산 아래 해안가의 경사지로 서쪽에 있는 玉女峰**(**해발 **554.7m)**이 동쪽으로 뻗어 내려와 장승포만 바다와 만나는 구릉성 산지의 북사면에 해당되며, 해발 **10~30m** 사이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의 동쪽은 급경사지로서 바다로 개방되어 있고 남쪽은 해발 **203m**의 야산으로 막혀 있으며, 북쪽으로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지역의 일부는 잡목으로 이루어진 야산이거나 좁은 계단식 밭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밭경작지 사이사이에는 근래에 와서 **10**여채의 민가가 형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인간활동과 관련된 고고학적인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고고학적인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이 지역이 서쪽의 비교적 높은 옥녀봉에서 동쪽 해안가로 개방되는 가파른 산지이고, 북사면에 해당되는 곳으로 지형이 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社會·民俗 및 地名由來 分野의 調査

1) 社會·民俗 分野의 調査**(**장승포동**)**

거제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민간신앙·세시풍속·전통놀이·구비전승·제례행사 등은 바다를 끼고 있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생활자체에서 해양과 관계된 세시풍속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농경문화의 세시풍속이 중심이 되고, 일반적인 어로와 관계되는 세시풍속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그 이유는 과거 전통문화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중 무형문화재와 그 외 의식과 놀이, 동제의 사례를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먼저 거제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 민속으로 향토문화재인 <굴까러(로) 가세>(장목면 시방리)라는 노동요(민요)가 전하고 있다. 이 노동요의 시작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춘궁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낙네들이 바닷가에서 굴을 캐면서 부른 노래이다. 가사의 내용이 익살스럽고 흥겨운 면이 있으나, 바닷가 삶의 고단한 애환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巨濟 七鎭農樂>(사등면 지석리)가 행해지고 있다. 놀이의 연원은 壬辰倭亂 때로 추정되는데, 당시 왜군이 침입해 오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횃불을 들고 성 위에서 농악을 벌리며 적을 교란시킨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후 靑鎭과 紅鎭으로 나누어 농악대결을 벌이는 놀이로 전승되었다. 놀이의 특징은 복장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농악복 대신 당시의 군복을 착용하고 행해진다는 점이다. 또한 <팔랑개 漁場놀이>(옥포동 팔랑포마을)는 어로와 관련하여 풍어를 자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팔랑개 어장놀이보존회'가 구성되어 전승, 보존에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 돌을 가지고 노는 놀이의 한 종류인 <石射(일명 石箭) 놀이>가 행해지는데, 옛날 병사들이 적의 공격에 대응하던 것이 놀이로 전승된 것이다. 그리고 <통영오광대(일명 학산오광대) 놀이>를 본받은 <거제 오광대 놀이>가 음력 정월보름날에 행해졌다고 전하나, 일제강점기 때 탄압을 받아 현재 그 맥이 끊어져 전승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 <별신굿>, <풍어제> 등이 지역에 따라 아직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으며, <신년 해맞이축제>, <옥포대첩기념제전> 등 지역문화행사도 정착되어 있다.

또한 거제일대에는 많은 설화와 전설, 민요가 전승되고 있다. 설화는 주로 지명유래의 전설과 특유한 인물전설,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전설이 전승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고려 毅宗과 관련된 지명과 설화가 많으며, 지역의 특성상 왜구(또는 왜적)와 관련된 설화도 많이 구전되고 있다. 민요의 경우, 거제가 원래 도서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전되고 있는 민요들 중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노동요의 비율이 서로 비슷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구전되고 있는 민요로는 여러 종류의 <모내기>와 <어업>과 관련된 많은 노래와 <타작노래> 등의 노동요와 <지신밝기 노래>와 <상여소리> 같은 의식요, <거제봉산타령>, <챗배노래>, <큰애기노래>, <떡타령> 등의 동요가 전승되고 있다.

2) 조사지역의 지명유래

조사지역에 해당하는 장승포동은 '長承浦里'에 속하는 지역으로 현재 법정동인 두모동과 행정동인 마전동이 모두 속해 있다. 좁은 지역임에도 3개의 洞으로 개편

---

37) 거제시에 전승되고 있는 民俗에 관한 자료는 광범위하다. 그러므로『韓國民俗大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慶南民俗資料集』(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 1993).『巨濟의 文化遺蹟』(거제시, 1997),『巨濟市誌』(巨濟市誌編纂委員會, 2002), <거제시청 홈페이지> 자료 등에 보고된 것들을 참고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되는 과정에서 독립, 병합의 행정체제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들의 지명전승을 장승포동·마전동 지역과 두모동 지역의 둘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장승포동, 마전동의 전승지명

조사지역인 '長承浦(洞)'의 어원은 "장승이 서 있던 거리"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으며, 다른 명칭으로 '長承巨里, 長承街'로도 불리운다. 그리고 '麻田(洞)'의 어원은 "밭에 삼[麻]을 많이 심었다"고 하여 우리말 '삼'과 '밭'의 한자인 '麻'와 '田'字를 사용한 것으로 우리말인 '삼밭'마을로도 불리운다. 이 밖에 마전마을 동북쪽에 "원래부터 있던 오래된 마을"이란 의미의 '舊-村'마을과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의미의 '新村'마을이 있으며, 신촌마을 동남쪽으로 '新富洞'마을이 있고, 북서쪽으로 '숲-안'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고개, 골짜기, 바위와 관련된 것으로는 마전마을 남쪽에서 일운면 옥촌리로 넘어가는 '삼밭-고개(재)'와 장승포 서쪽에서 아양동의 "아주장터로 넘어가는 고개"라는 의미의 '장터-고개'와 숲안마을 뒤쪽에 '손-목'으로 불리우는 좁은 고개가 있다. 골짜기로는 손목고개의 북서쪽에 "假葬을 했다"고 하여 '가장논-골' 또는 '개재이논-골'로 불리우는 골짜기를 비롯하여 마전마을에 '찬새밋-골'과 마을 동남쪽 구미산에 '귀밋-골'이 있으며, 신부동마을 북쪽에 '개분-지', 구촌마을 동쪽에 '물-넘'으로 불리우는 골짜기들이 각각 있다. 그리고 바위와 관련된 지명으로 구미산 동쪽에 생김새가 마치 "총알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총-바우'와 총바우 남쪽에 "사람의 턱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택-바우'로 불리우는 바위가 있다.

이 밖에 장승포 앞쪽에 '長承浦-灣'과 마전마을 동쪽에 '장승포-등대'가 있고, 장승포리 앞에 있는 '장승포, 장승개'로 불리우는 개[川][38]를 비롯하여 마전마을 동남쪽에 지세포의 군항이 보여 "나무를 심어 숲을 이루어서 (군항을) 가렸다"는 것에서 유래된 '배숲-개, 배림포[船林浦]', 구촌마을 동쪽에 "몽돌(자갈보다 크고 둥근 돌)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몽돌-개'라는 개[川]와 총바위 북동쪽에 '윤가(개)'로 불리우는 개[川]가 있다.

(2) 두모동의 전승지명

'杜母(洞)'은 다른 명칭으로 '두몰'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두모마을 동북쪽에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두모리에 병합된 '늣대', 또는 '느태'로 불리우는 마을이 있다. 산, 고개, 골짜기, 바위 등과 관련된 전승지명으로 느태마을 북서쪽에 "망을 보았다"고 하여 유래된 '망-재'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불리우는

38) 강이나 내[川]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을 말한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산과 고개가 있으며, 느태마을 북쪽에 "누룩(느릅)나무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인 '누룩-나무', 또는 '눈-나물'로 불리우는 산이 있다. 그리고 두모마을과 느태마을로 통하는 '두모-재'와 느태마을 동남쪽에서 德浦 웃골마을로 넘어가는 '웃골-재'로 불리우는 고개가 있다. 골짜기, 바위와 관련된 것으로는 두모마을 위쪽에 '웃-모실'로 불리우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곳에 "모실마을이 있었다"고 전한다. 또한 두모마을 남쪽에는 "넓적한 골짜기"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골납닥-골'과 서쪽에 洑가 있는 '복-골'이 있으며, 느태마을 남쪽에 "삼을 캤었다"고 하여 붙여진 '삼-골'로 불리우는 골짜기들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바위로는 두모마을 북쪽 산에 절벽으로 된 '청벽-바우'가 있으며, 마을 동쪽 산 위에는 '흠석-바우'와 마을 서남쪽에는 "넓적한 바위"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넙덕-바우'로 불리우는 바위가 있다. 느태마을 동쪽에 '띠꼬동-바우'가, 두모재에 "굴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굴-바우'가 있다. 이 밖에 두모마을 남동쪽에 '두몰', 또는 "다리가 있었다"고 하여 '다리'로 불리우는 목[39]과 '斗母-浦'(두므개, 두모개)로 불리우는 개[川]가 있다.

Ⅳ. 綜合考察 및 調査團 意見

이상으로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548-13**번지 일원의 '거제 장승포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를 문헌적, 고고학적 자료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조사내용을 요약하여 조사단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지역은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548-13**번지 일원이며, 조사대상면적은 **13,818**㎡(약 **4,180**평)로서 이 지역에는 (주)두꺼비주택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지역에 대하여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인관활동과 관련된 고고학적인 유구나 유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고고학적인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이 지역이 서쪽의 비교적 높은 산지에서 동쪽 해안가로 연결되는 가파른 산지로서 북사면에 해당하며, 지형이 험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조사대상 지역에 대하여 시굴조사나 발굴조사 등의 고고학적인 조사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공사 진행중에 지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지체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

39) 통로 가운데로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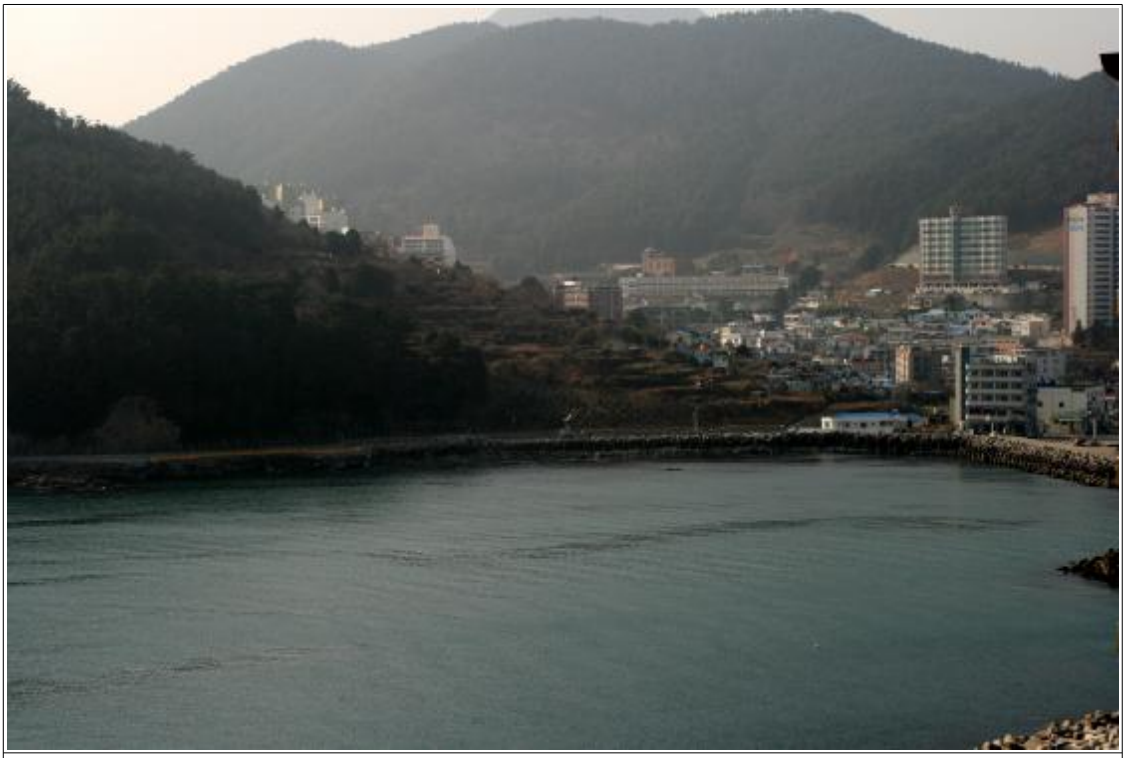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참고문헌】

『三國史記』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增補文獻備考』
『慶尙道邑誌』
『大東地志』
『嶠南誌』
『三國志』<魏書> 東夷傳

鄭澄元,「山達島貝塚에 대한 一考察」,『釜山大學校 文理科大學 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17, 197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韓國民俗大觀 **1, 2, 3**』, **1981.**
李承哲,「貝塚遺蹟址」,『巨濟文學』**2, 1984.**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東亞大學校 博物館,『巨濟 烏壤城址』, **1994.**
----------,『巨濟市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5.**
----------,『巨濟市 城址 調査報告書』, **1995.**
巨濟市,『玉女峰烽燧臺地表調査報告書』, **1995.**
정약용 지음・이민수 옮김,『我邦疆域考』, 범우사, **1995.**
李承哲,「巨濟島民謠集」,『巨濟鄕土史硏究所』, **1997.**
巨濟市,『巨濟의 文化遺蹟』, **1997.**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경상남도 연구』, **1997.**
東亞大學校 博物館,『巨濟 鵝洲洞遺蹟』, **1998.**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8**-경남편Ⅰ』, **2000.**
巨濟市誌編纂委員會,『巨濟市史』(上・下), **2002.**
東亞大學校 博物館,『巨濟 江望山烽燧臺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2002.**
國史編纂委員會,『한국사**1**-총설』, **2002.**
巨濟市・東亞文化硏究院,『文化遺蹟分布地圖-巨濟市』, **2005.**
東亞文化硏究院,「巨濟 江望山烽燧臺 發掘(試掘)調査 略報告書」, **2005.**
東亞文化硏究院,「거가대교 접속도로(장승포-장목)**4**차로 덕포구간 發掘調査 略報告書」, **2006.**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巨濟 鵝州洞 古墳群』, **200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1. 조사지역 원경1(동→서)



도판 2. 조사지역 원경2(북→남)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3. 조사지역 전경1(서→동)



도판 4. 조사지역 전경2(북→남)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5. 조사지역 근경1(동→서)



도판 6. 조사지역 근경2(서→동)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7. 조사지역 근경3(동→서)



도판 8. 조사지역내 경작지1(남→북)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9. 조사지역내 경작지2(동→서)



도판 10. 조사지역내 경작지3(서→동)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地表調査報告 第65輯

거제 장승포 공동주택건설 예정부지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인 쇄 일 / 2007년 2월 1일
발 행 일 / 2007년 2월 2일

編輯·發行 /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641-811 경남 창원시 도계동 412-7
봉영 B/D 401호
TEL : (055) 265-9150~3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

인 쇄 처 / 부 광 사
641-824 경남 창원시 사림동 11-1
TEL : (055) 285-1834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